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서 장성 선비문화 진수 체험

장성군 14일 '하서와 함께 걷다 : 필암서원 선비축제' 유산청·광주문화나루와 함께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 활쏘기·선비백일장... 국악과 현대음악 접목 무대도

장성군이 선비문화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성군은 국가유산청과 (사)광주문화나루와 함께 오는 14일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 '하서와 함께 걷다 : 필암서원 선비축제'를 필암서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앞선 5월에 이어 두 번째 행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은 장성이 배출한 조선시대 대표 유학자 하서 김인후 선생을 배향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하서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기반으로 한 선비문화를 현대적 감각의 콘텐츠로 재탄생시켜 관심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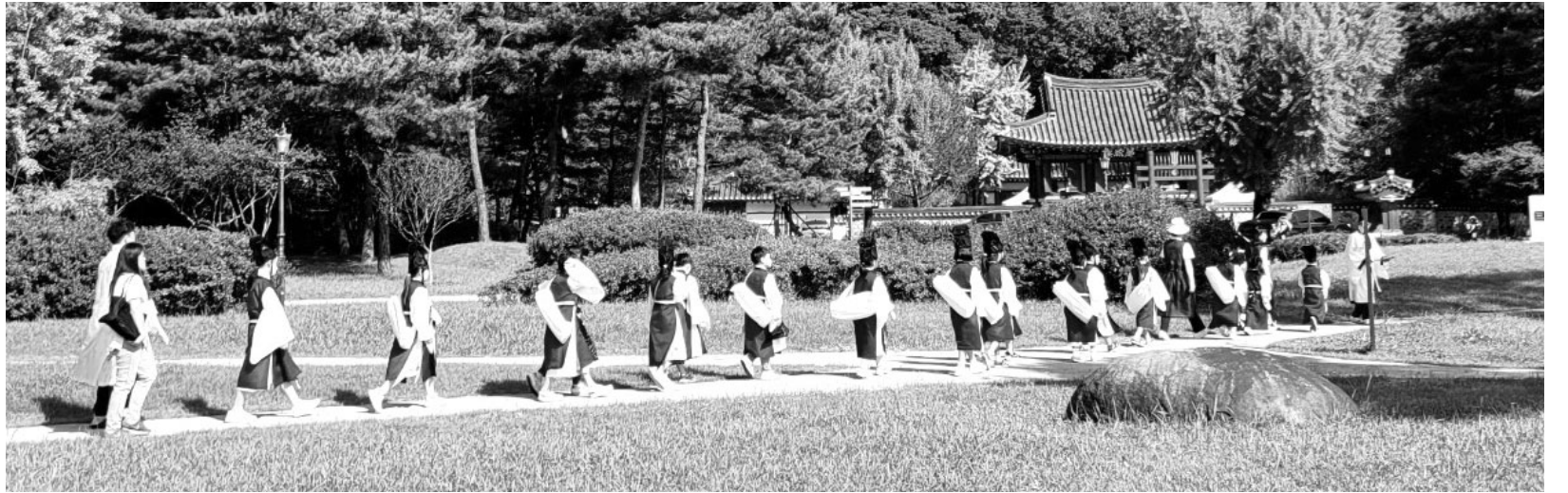
축제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간 가량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전통 유생복을 입고 필암서원을 탐방하는 '세계유산 탐색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

로 선비들의 삶과 학문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홍살문, 하마석, 은행나무, 확연루 등 서원의 주요 공간을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둘러본다.

우동사 봉심과 정절당에서는 지필연묵 체험, 서책 만들기 등에 참여하며 선비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껴볼 수 있다.

2부 공연 프로그램에선 엠비엔(MBN) '조선판스타' 우승자 김산옥, 국악밴드 '올라'가 국악과 현대음악을 접목한 예술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 이후에는 역사 해설가와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송내관(송용진)'이 '조선시대 왕세자의 일상과 스승 이야기'를 주제로 조선 교육문화의 이면을 흥미롭게 조명한다. 축제의 마지막 순서에는 활쏘기, 목죽도 인쇄, 선비백일장, 선비의 찻자리, '에



장성군이 오는 14일 필암서원 일원에서 선비축제를 연다. 지난해 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선비복장을 하고 필암서원 일대를 걷고 있다. <장성군 제공>

코백' 만들기, '캐릭터 배지' 제작, 전통사신 촬영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선비문화 체험이 기다린다.

장성군은 '2025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 중이다.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가치 제고 및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현중 장성군수는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필암

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라며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축제에서 장성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한껏 누리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 영산강정원 뜬다...전남도 정원페스티벌 개최지 확정

10월 8~29일 다양한 프로그램

나주시가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조성 중인 '영산강정원'이 전남 정원페스티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나주시는 '2025 하반기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 공모에 최종 선정돼 정원문화와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주목받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에는 나주시를 비롯해 화순군, 곡성군 등 3개 시군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전남도는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남도 K-가든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정원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하반기 전남 정원페스티벌은 '영산강 정원이 되다' 주제로 오는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나주 영산강정원에서 펼쳐진다.

나주시는 같은 시기 열리는 나주영산강축제(10월 8~12일), 국제농업박람회(10월 23~29일)와 연계해 축제와 정원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전문가, 시민, 공공기관이 함께 조성한 특화 정원을 비롯해 영산강 수변 생태환경을 반영한 식재, 생태 투어, 문화 공연, 체험 프



정원페스티벌이 펼쳐질 '영산강 정원' 일대.

그램, 정원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주시는 영산강의 생태와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해 '강과 정원의 융합'이라는 나주만의 독자적인 정원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페스티벌을 계기로 영산강 정원이 지닌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녹색 관광거점 구축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강을 배경으로 펼쳐질 정원페스티벌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정원문화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정원을 통해 변화된 영산강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 타지 청년 '스테이30 한달살기' 성료

강진군이 지난날 12일부터 6월 6일까지 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1기 스테이30 돌담빌리지(한달살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청년협동조합 편들이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선정된 전남형 청년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한달동안, 30일간의 머물'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강진군 병영면에 거주하며 지역과 호흡하고 교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9월까지 기수당 5명씩 총 4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년과 주민이 함께 병영면의 명소를 여행하며 마을의 매력을 발견하는 소규모 투어프로그램 '트립인 돌맹이마을'과 퇴소 전날 한달간 함께한 사람들간의 감정을 나누는 송별프로그램인 '돌맹이의 밤' 등이 있다.

한달살기 마지막날 개최되는 '성과공유회'에서는 청년들이 기획한 콘텐츠, 영상, 기록등을 발표하며 청년들의 시선으로 재해석된 창작물 및 아이디어를 지역 사회와 공유한다. 강진군 '돌맹이 마



'제1기 스테이30 돌담빌리지(한달살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전라 병영성 히멜기념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을'은 2024년 한해 326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그 중 5명의 청년이 병영면에 정착하는 등 지속 가능한 마을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잠시 방문하는 일회성 체험을 넘어 분야별, 연령별로 지역과 깊이 소통·협력하며 청년 창업과 지역 정착 등 강진군에서 꿈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인생 음악극 '엄마의 인생' 공연...14일 담양문화회관

담양군 '관객 참여형' 무대

담양군이 인생 음악극 '엄마의 인생'을 오는 14일 오후 4시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사단법인 누리미 주최하고 호남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며, 전라남도도와 전남도문화재단, 담양군이 후원해 무료로 진행된다.

'엄마의 인생'은 담양에 살고 있는 한 어머니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 음악극으로

한 여성의 평범하지만, 눈부신 인생 여정을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유년 시절의 순수함부터 결혼과 육아, 삶의 고단함과 상실, 그리고 손주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희망까지, 인생의 희로애락을 진솔하게 담아내 관객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관객이 단순히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극에 참여하는 '참여형 공연' 형식으로 특별함을 더하고 있다.

관객들이 무대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럽게 극

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호남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는 '찹쌀떡', '나비소년', '섬집아가' 등 세대를 아우르는 친숙한 곡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공연 관계자는 "엄마의 인생"은 우리 주변 모든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잊지 못할 보랏빛 추억... '작천 코끼리마늘꽃 3 Days' 행사

20일부터 3일간 강진 부흥마을서

'제2회 작천 코끼리마늘꽃 3 Days' 행사로 강진군 작천면 부흥마을이 보랏빛 꽃물결로 물든다.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끼리마늘꽃이 활짝 핀 부흥마을 일대를 배경 삼아 다채로운 꽃들이 가득한 꽃단지 정원과 함께 농촌만의 따뜻한 정서를 가득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약 4ha 규모의 재배단지에는 코끼리마늘꽃뿐 아니라 매밀, 버들마편초, 장미 등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꽃밭 곳곳에는 포토존과 쉼터가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행사장 중심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판매 부스와 음식 부스가 자리 잡는다.

판매 부스에서는 부흥마을에서 생산한 쌀, 감자, 고사리, 오디, 옥수수 등 다양한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음식 부스에서는 닭개장국 콩국수, 오리날개튀김, 홍어삼합 등 향토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제2회 작천 코끼리마늘꽃 3 Days' 행사가 열리는 강진 작천면 부흥마을이 보랏빛 꽃물결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무료로 인화해 주는 서비스부터, 족욕 체험, 감자 캐기 체험 등 가족 단위 방문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가득하다.

이 외에도 하멜촌커피 부스에서는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릴 경우 플렛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

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장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스토리에 올리고 부스에서 인증하면 현장 경품을 받을 수 있는 SNS 인증 이벤트와 SNS 스토리 업로드 이벤트 등 SNS 홍보를 통한 이벤트들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해보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분양

주택용지 55세대·텃밭 17필지

18~24일 온비드 전자입찰 진행

함평군이 귀농·귀촌 희망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해보면 산내리 일원에 조성한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의 분양을 본격 추진한다.

함평군은 해보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분양 전자입찰을 18일부터 24일까지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다.

개찰은 30일 오전 10시 이후에 시작하며 낙찰자는 다음 날인 7월1일 오후 2시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군청 지역개발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평군은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

해 해보면 산내리 일원에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를 설계했으며, 총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해 주택용지 55세대, 농업용지 4필지, 텃밭 17필지를 조성했다.

전원주택단지는 광주시청에서 차량으로 약 25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15분 거리이며 국도 22호선·23호선과 인접해 있다.

또 인근에는 용전사, 잠월미술관, 모악산 등 풍부한 자연·문화 자원이 있어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매력적인 입지 조건을 제공한다.

이번 분양은 주택용지와 농업용지를 함께 공급해 은퇴자와 귀농 희망자들이 도시의 편의성과 농촌의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또 인근에는 용전사, 잠월미술관, 모악산 등 풍부한 자연·문화 자원이 있어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매력적인 입지 조건을 제공한다. 이번 분양은 주택용지와 농업용지를 함께 공급해 은퇴자와 귀농 희망자들이 도시의 편의성, 농촌의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군, 사평면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운영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 완료

화순군이 2025년 상반기 시행한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사평면 원리 등 9개 마을 원거리 검침 지역의 수용기와 계량기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를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한 원격검침 단말기로 교체·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의 원격검침 단말기는 2025년 6월 현재 일반 계량기 총 1만 8576개소 중 원격검침 단말기 7288개소가 설치되어 39.2%의 설치율을 나타냈다.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은 통신망을 이용해 계량기에서 시간마다 보내는 수도 사용량 데이터를 단말기를 통해 수집하는 장치다.

원격검침시스템은 비대면 검침으로 수용가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고 부재로 인한 미검침 문제, 검침원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사용량 모니터링으로 복지 사각지대 수용가 신속 대응, 수용가 내 누수 조기 발견, 정확한 검침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 부과 신뢰성 향상의 장점이 있다.

박종욱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장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비대면 검침으로 시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격검침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